

韓國海洋工學會 創立總會

- 서울대학교 호암 컨벤션 센터 -

祝 辭

1997. 5. 22

海洋水産部次官

張 丞 珩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 또한 평소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성곤 의원님, 그리고 각계 전문가 여러분!

우리 나라의 해양환경 문제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로 해양환경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출발하는 「한국해양환경공학회 창립총회」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해양환경공학회 창립총회」의 창립은 지난해 8월 “세계 일류 해양국가 건설”이라는 큰 사명을 띠고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이후 해양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나라가 이룩하여 온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삼아 우리 나라의 해양력은 해운산업 세계9위, 조선산업 세계2위 등으로 주요 해양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력의 발전과 함께 해상교통량이 증가하고 선박이 대형화됨에 따라 해난사고로 인한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95년에 발생한 유조선 씨프린스호 등 오염사고로 인하여 연안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그의 완전한 복구에는 몇십 년의 세월이 필요한 실정임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유조선 사고와 관련하여 해양환경보호 문제가 각국의 중요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국제 협약도 날로 강화되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지역협력체제가 강화되고 국가별로 긴급방제 계획과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방제 장비를 확보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기술의 개발과 함께 내실 있는 해양환경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해양수산부가 발족되기 전에는 정부의 해양환경 관련 기능의 분산으로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이 곤란하여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지 못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발족을 계기로 해양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 해양환경 보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 「한국해양환경공학회」가 발족됨에 따라 우리가 안고 있는 해양환경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양환경을 온전하게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앞으로 「한국해양환경공학회」가 능동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정부가 추구하는 깨끗한 바다 가꾸기에 이바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인도 또한 관계 전문가 여러분과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좋은 의견은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발족하는 「한국해양환경공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 5. 22

해양수산부차관 장승우